

## 2012년 현충일 특별집회 표어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본성으로 살고 행동함으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 영광이며, 바로 이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주님의 최선의 움직임을 위해 모든 교회들은  
한마음 한뜻 안에 있어야 하며, 한 마음과 한 길을 갖고,  
한 영 안에서 한 혼으로 있기를 배우며, 같은 것을 말해야 한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은 과정을 거치셨고 분배하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신랑의 배필인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위해 신성한 생명의 확장인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이다.

2012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

몸의 진정한 하나와  
교회 안에 있는 합당한 한마음 한뜻과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

메시지 1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안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간구한 주님의 기도

성경: 요 17:1-24

- I.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기도는 삼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됨, 곧 삼일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다—요 17:1-5, 창 1:26, 엡 3:8-11.
- A. 주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거하실 수 있는 장막이었다(요 1:14). 주님의 신성한 요소는 마치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성막 안에 숨겨졌던 것처럼 그분의 인성 안에 갇혀 있었다.
- B. 한때 변형의 산에서 주님의 신성한 요소가 그분의 육체에서 해방되어 영광 안에 표현되었고, 세 제자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은 다시 그분의 육체 안에 숨겨졌다—마 17:1-4, 요 1:14.
- C.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주님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아버지도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예언하셨다. 이제 주님은 신성을 숨기는 인성의 껍질이 깨어지도록,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요소,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도록 죽음을 통과하려 하고 계셨다—요 12:23, 13:31-32.
- D. 또한 주님은 부활하실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요소 안으로 높여 신성한 요소가 표현되게 하며, 그 결과 그분의 온 존재, 즉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다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버지도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다—눅 12:49-50, 요 12:23-24, 17:1.
- E. 여기서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신성한 비밀에 관한 주님의 기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첫째, 이 기도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졌다. 부활 안에서 주님의 신성한 요소, 신성한 생명이 주님의 인성 안에서 많은 믿는 이들 안으로 해방되었고(요 12:23-24), 주님의 인성을 포함한 온 존재가 영광 안으로 이끌렸으며(눅 24:26, 비교 고전 15:45하, 행 13:33, 롬 1:3-4, 골 1:18, 벰전 1:3), 또한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표현되었다. 하나님은 부활 안에서 주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셨다(행 3:13-15).
  2. 둘째, 이 기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많은 지체를 통하여 표현됨으로 주님은 그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엡 3:21, 딤후 3:15-16.
  3. 셋째, 이 기도는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영광 안에서 충만히 표현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계 21:11, 23-24.
- F.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는 이 영광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14장 2절에 있는 아버지의 집(교회)이고, 둘째는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성분들)이며, 셋째는 16장 21절에 있는 새로 태어난 단체적인 사람(새사람)이다.
1. 이 세 가지 모두가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증거라는 것을 보여 준다—요 12:23-24.

2. 이러한 영광스러운 증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됨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다. 즉 교회를 통해 완전히 표현되신다—요 17:1, 4, 엡 3:19-21, 비교 고전 6:20, 10:31.
3. 이러한 표현은 삼일 하나님의 하나 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결론을 맺는 그분의 기도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셨다.
4. 삼일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은 하나이다. 따라서 그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 즉 표현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하나 안에서 표현되시는 것이다—요 17:21.

**II.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곧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A. 하나의 첫째 단계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한 하나이다—요 17:6-13.

1.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인격, 곧 생명의 근원이시자 하나의 근원이신 아버지 자신을 의미한다—요 17:6, 11, 5:26, 43.
  - a.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를 생명과 축복의 근원으로 취해야 한다—비교 마 14:19, 롬 11:36.
  - b.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간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삶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아들의 자격을 누려야 한다—요 6:57, 롬 8:15-16.
2. 아버지의 본성이 있는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의 요소이다—요 17:2, 비교 엡 1:4-5, 히 2:10-11, 고전 6:17.

B. 하나의 둘째 단계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실재 안에 있는 하나이다—요 17:14-21.

1.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요 17:17), 진리는 삼일 하나님이다(14:6, 요일 5:6하). 말씀의 실재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삼일 하나님 자신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2. 진리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하고(요 17:17), 이 세상 왕인 악한 자로부터 지켜준다(15절).
  - a. 아버지의 실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순수하게 함으로써, 혼합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순수함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께로 분별시킨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수록 더욱더 순수하게 된다—시 12:6, 119:140.
  - b.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를 하나의 영역 안으로 이끈다—요 17:21, 엡 5:26.

C. 하나의 셋째 단계는 과정을 거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신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이다—요 17:22-24.

1. 신성한 영광 안에서의 모든 믿는 이들의 하나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표현된 아들의 자격 안에 있는 하나이다—요 17:22, 5:26.
2.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신성의 이 빛나는 표현이 우리를 우리의 자아로부터 구출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한다—비교 계 21:11.
3. 이러한 하나의 단계에서 자아는 완전히 부인된다.
  - a. 우리는 반드시 야심과 자만(自慢)과 의견과 관념을 포함한 우리의 자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요 17:21-23, 롬 5:10, 고전 1:10-13, 요삼 9.
  - b. 우리가 기꺼이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영으로 돌이킨다면 즉시 우리는 몸의 실재 안에 있을 것이다—엡 2:22, 요 16:13.
  - c.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따라 자신의 본성으로 삶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표현 안에는 분열이 있다.
  - d.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본성으로 살고 행동함으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 영광이며, 바로 이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4.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생활이어야 한다—고후 3:16-18.

**III.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를 강조해야 하며,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렇게 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 사탄과 함께하는 세상, 자아를 폐하여) 주님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엡 4:1-6.**